정보 구축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기록화 지원

조앤 오르
스코틀랜드박물관갤러리 대표

개요

본 발표에서는 유럽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위키(wiki)'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해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목록 구축작업을 개괄한다. 영국 내 주권위임국가인 스코틀랜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포용하는 고유의 문화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측에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비준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는 협약에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정의를 반영하여 목록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스코틀랜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향후 보호체계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이 접근법은 몇 가지 과제를 안겨 주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윤리적 문제와 맞닥뜨렸다. 위키의 디지털 목록 형식은 지역공동체의 소유권을 촉진하는데, 이는 곧 목록에 담긴 데이터가 사용자가 만든 자료임을 뜻한다. 우리의 과제는 공동체적 접근법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협약에서 전제하는 대로 기본적 인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관습은 홍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다.

Ⅰ. 서론

영국은 1999년 스코틀랜드에 자치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4개 자치정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치권한이 위임된 분야는 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해 내무(內務)의 모든 측면을 아우른다. 유네스코는 위임된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각종 유네스코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영국 정부 차원에서 처리된다. 영국은 지금까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가 이 협약의 정신에 입각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영국이 권한을 가진 영역이므로 스코틀랜드는 비준할 수가 없다.

스미스와 워터튼(Smith and Waterton, 2009)은 최근 그들이 발표한 논문 '세계적 선망의 대상(The Envy of the World)'에서 영국이 2003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는 잉글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문화유산 담론'이 단지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인정된 유산 담론이 국가적 중요성의 확인, 그리고 목표와 불변의 미학 및 진정성의 가치 확립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정체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영국정부가 바라보는 문화유산은 과거의 것이고 그 자체로 최종 산출물이다. 이러한 관점은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무형문화유산과 상충된다.

스코틀랜드가 2003년 협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해당 협약이 이곳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공동체가 각자의 문화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의존하는 온라인 위키를 활용하여 이 협약의 목록 요소를 이행하는 과정과 각자의 무형문화유산 파악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공동체의 의지를 조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목록작성 작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콘텐츠를 어디까지 조정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관습은 홍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II. 제도적 상황

스코틀랜드박물관갤러리(Museums Galleries Scotland, 이하 MGS)는 스코틀랜드 내 350여 개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가장 외진 섬마을부터 영국 최대의 박물관 시설을 갖춘 대도시 글래스고까지 스코틀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역에서 인구당 박물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MGS에 소속된 회원 박물관 중 대다수는 지역공동체 안에 자리잡은 소규모 독립신탁기관이다. 이 부문은 자원봉사자가 인력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곳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하나의 산업부문은 연간 8억 파운드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매년 2천5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곧 박물관이 문화적 허브로 기능하고 카페나 만남의 장소와 같은 추가적 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노스유이스트 섬 로크매디에 위치한 Taigh Chearsabhagh는 박물관인 동시에 (아트센터이자) 우체국이며, 리즈모어 섬의 문화유산센터에는 도서관 및 지역센터도 함께 들어서 있다.

III. 무형문화유산과 목록작성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접근방식 – 연구 프로젝트

MGS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박물관과 갤러리를 위한 발전 기구이며, 2006년경부터는 문화유산 관련 부문으로부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원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에 응하는 차원에서 MGS는 스코틀랜드 내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편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의뢰했다. 이 작업의 업무지침서는 2003년 협약을 제2.2조에 명시된 영역 정의를 활용하는 기본 틀로 사용했다. 이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은 MGS와 당시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Scottish Arts Council), 유네스코영국위원회(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의 스코틀랜드위원회(Scotland Committee)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고, 스코틀랜드 정부의 게일어 부서에서 조언을 제공했다.

이 연구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한 기관은 에딘버러 내피어대학교(Edinburgh Napier University)였다. 이 대학은 2008년 1월에 연구를 위임 받았고, 그 연구결과를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 - 성공으로 가는 길'(2008)이라는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 연구자료에는 출생지나 스코틀랜드에 거주한 기간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만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한 고찰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있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될 것이고, 그 자체로 다양성을 촉진하고 문화적 지식과 이해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즉 스코틀랜드 내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관습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스코틀랜드에 산재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산 목록이 그 첫 걸음에 해당할 것이며 '위키' 형식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키를 비밀번호로 보호해야 하며 교육과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스코틀랜드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이들에서부터 이 과정을 시작할 것이며 소위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MGS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던 에딘버러 내피어대학교는 '위키' 방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목록을 구축하는 3년짜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영국예술인문연구위원회(UK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자금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위키 사양은 미디어위키(MediaWiki)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이 기본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맞춤식으로 조정되었다. 당시의 예상은 스코틀랜드 지방당국들이 등록 사용자로서 해당 목록에 자료를 제공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당국은 이런 역할을 할 여력이 없었으며, 기존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당국 대신 일반 국민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신속히 마련되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 지침 동영상을 위키에 업로드했다. 위키 홈페이지 역시 영어, 스코틀랜드어, 게일어 등 세 가지 언어로 접속할 수 있게 수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위키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위키 기록을 생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형문화유산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온라인 이용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 기간의 이 연구 프로젝트는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위키가 그러한 홍보수단의 핵심이었다. 홍보활동에서는 분기별 뉴스레터의 발행과 함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했다. 에딘버러 내피어대학교 연구팀도 지역 단체들과 함께 목록 기록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무형문화유산 사례를 소개하는 단편영화들이 연이어 제작되어 현재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Ⅳ.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과 박물관

스코틀랜드 박물관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은 자연히 대다수 무형문화유산 활동의 출입구가 된다. 이들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 언어, 전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은 새로운 청중과 만날 기회를 얻고 일반인들은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사례는 현재 웨스턴아일과 일부 하이랜드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일어에 관한 것이다. 인버네스 박물관 및 미술관(Inverness Museum and Art Gallery, IMAG)은 재단장 후 2007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박물관 곳곳에서 게일어를 소개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화를 가했다. 박물관측은 이런 장소를 원했다.

'게일어를 소개하고, 게일어의 사용을 촉진하며 스코틀랜드의 풍요로운 문화 정체성을 기리는 곳.'

박물관 전체에서 모든 통역과 신호체계에 두 언어를 사용했고, 게일어는 시종일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게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두 언어를 비교해볼 수 있게 해준다.

박물관이 전국적 차원에서 특정 무형문화유산 관습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작용한 또 다른 사례는 스코틀랜드 어업박물관(Scottish Fisheries Museum)이다. 이 박물관은 학생들과 역사적인 자체 조선소와 함께 전통 디자인을 토대로 노를 젓는 소형선박 건조 키트를 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MGS를 통해 지원되었다. 2010년 이 박물관은 해안 조정클럽을 창단했으며 클럽은 박물관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를 경기에 사용했다. '스코틀랜드 해안 조정 프로젝트'의 밑바탕에 깔린 구상은 지역공

동체들이 함께 모여 조정클럽을 구성하고 박물관 측이 개발한 키트를 활용하여 배를 만든다는 것이다. 선박은 제작이 끝나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다. 첫 해에만 보트 10척을 진수시켰고 현재 22척이 물 위에 나갔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16척이 추가 제작될 계획이다. 이제 여러 지역공동체가 이 배들로 경주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스코틀랜드 해안지역에서 행해졌던 지역공동체 간 보트경주라는 전통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MGS가 자금을 지원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노스유이스트 섬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 겸 아트센터인 Taigh Chearsabhagh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곳에서 현대 미술가 데이드레 넬슨(Deidre Nelson)은 인공유물, 사진, 구전 기록 컬렉션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데이드레는 어부들의 상의, 특히 각 어촌마을마다 고유의 문양이 있는 에리스케이 점퍼에 사용된 상징을 연구했다. 그런 뒤 '그는 박다 만 이불에 불과하다,' '적수 없이는 연어도 없다'와 같은 게일어 속담들을 자신의 연구와 결합시켰다. 살아있는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새로운 예술작업은 뜨개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정을 되살리는 데 일조했고, 그 결과 현재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뜨개질을 하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모레이와 애버딘셔의 경계에 자리한 포트소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코틀랜드의 전통보트축제는 16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축제는 2008년 포트소이 연어오두막(Portsoy Salmon Bothy)에 새로운 박물관 기지의 문을 열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북동부 지역의 해양 및 문화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해, 어업, 공예, 언어, 음악, 춤, 식품 및 음료 등이 그러한 유산에 포함된다. 박물관 장소가 생김으로써 축제 조직은 기존의 연례행사 외에 관련된 다른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과도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V. 목록의 향후 발전과 과제

스코틀랜드의 위키 기반 목록작성 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추구한다. 즉 사람들이 직접 목록 기록을 만들고 자신의 무형문화유산 관습과 그 중요성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고무하는 방식이다. 에딘버러 내피어대학교는 위키

목록을 MGS에게 넘기기 전까지 업로드되는 자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를 검토했지만, 모든 엔트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온라인 위키의 운영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MGS는 향후 이 사업을 발전시킬 방법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목록 기록이 생성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의 홍보에 있어서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어느 수준만큼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입 수준이 낮고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마치 위키피디아에 수집된 정보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보 플랫폼에 해당하는 위키피디아와 달리 이 목록은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지금 MGS는 위키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유네스코의 모든 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인권에 위배되거나 스코틀랜드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령 파벌적인 내용을 담은 축구 응원가가 널리 알려야 할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 사례로 게시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조정 및 관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은 민족 평등에 관한 국내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에서 위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정보를 홍보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MGS는 위키피디아 계열사의 일부인 영국 위키미디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모색 중이다. 위키미디어는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 관습에 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언어 중 상당수의 엔트리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체결하게 될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자료 중 일부를 위키로 이전하는 업무를 맡을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책임 있는 태도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위키피디아에서도 똑같이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다. 한 가지 점차 분명한 사실은 목록 및 정보수집 단계와 무형문화유산 관습의 보호가 서로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이제 MGS 측에 이양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목록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MGS는 대중과 이 목록을 연결시키고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MGS는 스코틀랜드의 건축 유산 및 예술 기구들인 히스토릭 스코틀랜드(Historic Scotland)와 크리에이티

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와의 제휴 하에 2012년 중 무형문화유산을 핵심 주제로 활용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은 창의성과 문화를 주제로 삼은 해로써 이를 앞두고 MGS는 박물관을 전통음악, 이야기, 공예, 축제와 같은 살아있는 전통관습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코틀랜드의 무형문화유산 관습 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를 신청하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일반인에게 투표하게 하는 온라인 검색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3년 유네스코 협약과 영국에서 이 협약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영국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전통유산을 고착된 과거의 것이라 여기는 유럽의 관점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유산이 현대사회에서도 생명력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전파하는 무형문화유산 협약과는 상충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에는 전통유산의 특정한 측면을 보존하고 종종 그것을 특정 시기와 결부시키는 데 집중하는 다양한 조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모두 해당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 방대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예컨대 지붕 엮기나 돌제방 쌓기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맥락이나 대대로 전수된 건축기법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관한 이 두 관점이 처음에 드러나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그리 상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유산을 단지 어떤 현장이나 장소, 무형의 공연이나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 관습으로 바라보는 유산의 재이론화 작업이 광범위한 관련 문헌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포용하는 이러한 관점은 분명 스코틀랜드에서 지금까지 건재하다. 이 관점은 지역사회 곳곳에 녹아들어 있으며 350개가 넘는 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전통유산은 그 유형성이나 무형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며, 살아있는 관습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를 설정하고 온

라인 위키를 활용하여 스코틀랜드의 살아있는 관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산은 과거의 것이자 최종 산출물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은 생생하게 지속되는 실질적인 과정이다. 유산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관례에 불과하므로 모든 유산이 무형의 상태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영국이 세계 어느 곳 못지 않게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전통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영국 정부가 2003년 협약을 비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